

“주변에서 다 하니까” 포모 심리에 뛰어드는 대학생 투자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조동현(신소재공학 2021) 씨는 “주변에서 주식 얘기만 해서 안 하면 뭔가 손해 보는 느낌을 받아 시작했다”고 투자를 시작한 이유를 밝혔다. 연일 국내 증시가 뜨거운 가운데 학생들 또한 주식 시장에 뛰어들면서 학내 포모(Fear Of Missing Out) 현상 또한 심화되고 있다. 포모 현상이란 놓치거나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현상을 뜻한다.

최근 청년층 투자 열풍으로 이러한 유형의 흐름에 편승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하나금융연구소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2026 대한민국 금융소비자 트렌드’에 따르면 2세대의 금융자산 중 투자·가상자산 상품 예치 비중은 지난해 26.3%로 전년 대비 1.4%포인트 증가했다. 이 같은 열풍은 학내에서도 나타난다. 실제로 우리학교 중앙 주식경제동아리 ABS 회장 최석훈(경영학 2020) 씨는 “이번 동아리 모집 기간에 대략 100명 가까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금융기관의 도움을 빌려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일명 ‘빚투’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미비한 학생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끌어모아 투자한다. 김경민(한국어학 2021) 씨는 “인턴을 하면서 번 돈과 생활비를 모아 투자하고 있다”며 “투자금이 부족하다 보니 조금 더 변동성이 큰 주식에 공격적으로 투자했다”고 말했다.

군대 적금을 투자금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경서(원자력공학 2021)씨는 “투자금의 규모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군적금을 꺼서 투자했다”고 말했다. 현재 군대 복무 중인 A씨 또한 “주변 군인들 모두 핸드폰을 받으면 주식 시장부터 확인한다”고 말했다.

명지대학교 빈기범(경제학) 교수는 이러한 심리적 동요가 주식 시장 전반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

이라고 분석했다. 빈 교수는 “자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 가만히 있는 자신은 상대적으로 가난해진다는 불안감을 느낀다”며 “이러한 불안이 결국 공격적인 투자 결정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빈 교수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두고 “과거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했을 때는 예외 없이 조정이 뒤따랐다”며 “불안감으로 인해 생각 없이 무리해서 돈을 투자하는 방식은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최근 주식 시장은 코스피 6000 달성이라는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란 전쟁의 확산 여부와 국제 유가 급등 등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대외 변수가 존재하고 있어 변동성이 매우 크다. 특히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증시 전반에 즉각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정세 분석 없이 무작정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는 사실상 ‘투기’와 다름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무리한 투자는 손실로 이어지기도 한다. ABS에서 스터디 팀장을 맡고 있는 신민준(정치외교학 2023)씨는 “주변인들 중 단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 돈을 잃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며 “며칠만에 몇 백만원의 손실을 겪은 학생도 봤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투자가 투기 문화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건전한 투자 문화 형성을 위한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자본시장연구원 김민기 연구위원은 “자본 투자가 필수가 된 시대지만 단기 수익을 좇는 무리한 투자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투자자는 정보 비대칭에 취약한 만큼 개별 종목에 집중하기보다 ETF나 펀드와 같은 분산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학생들은 대부분 사회 초년생이기에 최소 30년은 더 경제활동을 할 것”이라며 “어릴 때부터 금융 시장에 발을 들여 자산 일부를 위험 자산에 노출해 보는 경험은 미래에 본인만의 탄탄한 투자 원칙을 세우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주째 이어지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유가가 치솟으며 차를 이용해 통학하는 학생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사진=원희재 기자)

오르는 기름값에 학생들도 한숨 대중교통 불편...선택지도 좁아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저렴한 주유소는 항상 줄을 서야 하고, 휘발유가 품절인 경우도 있었어요”

차를 운전해 통학하는 김규태(기계공학 2024) 씨는 주유를 위해 길게 늘어선 차량 행렬을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에 줄을 서는 풍경은 이제 낯설지 않다. 경희주유소 직원 A씨도 “유가가 오르면서 조금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아다니는 차량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2주째 이어지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유가가 치솟으며 차를 이용해 통학하는 학생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국제캠퍼스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의 효율이 낮아 차량통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다. 최근 교내 주차등록차량이 증가하고 주차공간 부족문제로 정기주차권 총량제가 실시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달 9일 기준 국제 원유가격은 985원 수준으로 전쟁 발발 전인(지난달 27일 기준) 629.4원보다 56.5% 상승한 수치다. 국내 평균 휘발유 가격도 상승세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공개시스템 ‘오피

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28일 1693원에서 지난 10일 기준 1907원으로 약 12.6% 상승했다.

학생들은 차량 통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불편한 교통편과 높은 월세를 꼽았다. 차량 통학을 하는 장우영(원자력공학 2023) 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동 시간이 너무 길어 자취도 고민했지만 월세 부담이 커 결국 차량 통학을 택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카카오맵 기준 장 씨의 통학 시간은 차량 이용 시 약 58분이지만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평균 1시간 28분이었다.

오지수(전자공학 2024) 씨 또한 “본가와와 직선거리가 멀지 않지만 대중교통 노선이 돌아와서 차를 끌 때보다 한 시간 이상 더 걸린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석유제품 시장 구조상 유가 상승이 학생들의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름값은 국제유가뿐 아니라 환율과 국제정세, 유류세 등의 영향을 함께 받아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허은영(자원경제학) 교수는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뿐 아니라 환율 상승 등 국제 시장의 불안심리로 반영돼 변화폭이 크고 변수도 많은 구조”라며

“기업체나 공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싼 가격으로 석유를 대량구매해 선제 대응할 수 있지만 차를 모는 학생들은 주 단위로 기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온다”고 설명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 장태훈 박사도 “최근 석유에 대한 기대수요가 늘어난 데다 전쟁으로 국제시장이 더욱 불안정해지면서 기름값 상승 폭이 과거 오일쇼크 때보다 더 가파르게 나타난다”며 “학생들의 경우 생활비에서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부담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 정세 변화로 유가 상승세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허 교수는 “만약 전쟁 중 정유시설에 대한 공격이 발생한다면 엄청난 파장의 오일 쇼크가 재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지난 7일 SNS를 통해 이란 테헤란 인근의 정유 시설을 타격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국제 사회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학생들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장 씨는 “이번 사태로 언제 다시 또 기름값이 오를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안고 운전하고 있다”고 말했다.